

필름앤비디오 FILM & VIDEO

영화로, 영화를 쓰다

FILM_Text and Image

Film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영상관
MMCA Seoul FILM & VIDEO

2022.10.28.-12.18.
www.mmca.go.kr



프로그램 행사

강연 1. 정화의 여정: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소설과
영화적 글쓰기

최윤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소설가)

일시 2022. 11. 4. (금) 15:00

장소 B1, MMCA영상관

강연 2. 테레사 학경 차의 경계의 예술

김현주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일시 2022. 11. 18. (금) 15:00

장소 B1, MMCA영상관

강연 3. 이란 사회와 여성, 포루그 파로흐자드와 그 이후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일시 2022. 12. 2. (금) 15:00

장소 B1, MMCA영상관

스크리닝+토크. 〈차학경 프로젝트〉

이수진

일시 2022. 11. 27. (일) 15:00

장소 B1, MMCA영상관

낭독. 뒤라스와 고다르의 대화

진행: 신은실, 낭독: 김은희+백종관

일시 2022. 12. 10. (토) 15:00

장소 B1, MMCA영상관

Program Events

Lecture 1. *Journey of Purification: The Fiction and
Cinema Writing of Marguerite Duras*

Ch'oe Yun (emeritus professor, Sogang University;
novelist)

Date 2022. 11. 4. (Fri) 15:00

Venue B1, MMCA Film & Video

Lecture 2. *Theresa Hak Kyung Cha's Art of
Boundaries*

Kim Hyeonjoo (professor,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Date 2022. 11. 18. (Fri) 15:00

Venue B1, MMCA Film & Video

Lecture 3. *Iranian Society and Women: Since
Forough Farrokhzad and Her Legacy*

Koo Gi Yeon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Date 2022. 12. 2. (Fri) 15:00

Venue B1, MMCA Film & Video

Screening+Talk. *Theresa Hak Kyung Cha Project*

Sujin Lee

Date 2022. 11. 27. (Sun) 15:00

Venue B1, MMCA Film & Video

Reading. *Duras/Godard Dialogues*

Moderator: Shin Eun-shil,

Reading: Kim Eunhee/Paik Jongkwan

Date 2022. 12. 10. (Sat) 15:00

Venue B1, MMCA Film & Video

영화로, 영화를 쓰다

포루그 파로흐자드

프로그램 1

- 검은 집

차학경

프로그램 2

- 비밀스런 유출

- 입에서 입으로

- 치환

- 비데오엠

- 다시 사라짐

마르그리트 뒤라스

프로그램 3

- 갠지스 강의 여인

프로그램 4

- 인디아 송

프로그램 5

- 캘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

수전 손택

프로그램 6

- 형제 칼

프로그램 7

- 약속의 땅

프로그램 8

- 안내 없는 여행

FILM_Text and Image

Forough Farrokhzad

Program 1

- The House is Black

Theresa Hak Kyung Cha

Program 2

- Secret Spill

- Mouth to Mouth

- Permutations

- Vidéoème

- re dis appearing

Marguerite Duras

Program 3

- La Femme du Gange

Program 4

- India Song

Program 5

- Son nom de Venise dans Calcutta désert

Susan Sontag

Program 6

- Brother Carl

Program 7

- Promised Lands

Program 8

- Unguided Tour (Letter from Venice)












2022. 10. 28. – 12. 18.

자막
 (K) 한국어
 (E) 영어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
| 11.23 | 24 | 25 | 26 | 27 |
| 15:00 ㉔㉕ | 15:00 ㉕㉖㉗ | | 15:00 ㉕㉖㉗ | 15:00 ㉕㉖㉗㉘ |
| 프로그램 7 (87min) | 프로그램 8 (71min) | | 프로그램 1 (22min) | 스크리닝+토크 |
| - 약속의 땅 | - 안내 없는 여행 | | - 검은 집 | - 차경경 프로젝트 (24min) |
| | | | 18:30 ㉕㉖ | |
| | | | 프로그램 5 (114min) | |
| | | | - 캘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 | |

| 30 | 21 | 2 | 3 | 4 |
|---|---|---|---|--|
| 15:00 12K 프로그램 4 (120min) - 인디아 송 | 15:00 6K 프로그램 5 (114min) - 캘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 | 15:00 6K E 프로그램 1 (22min) - 검은 집 강연 3. 구기연 이란 사회와 여성, 포루그 파로흐자드와 그 이후 | 15:00 6K E 프로그램 8 (71min) - 안내 없는 여행 19:00 12K 프로그램 6 (97min) - 형제 칼 | 15:00 12K 프로그램 7 (87min) - 약속의 땅 |

| 7 | 8 | 9 | 10 | 11 |
|---|---|--|---|--|
| 15:00 G K E 프로그램 8 (71min) - 안내 없는 여행 | 15:00 12 K 프로그램 7 (87min) - 약속의 땅 | 15:00 12 K 프로그램 6 (97min) - 형제 칼 | 15:00 낭독, 뒤라스와 고다르의 대화 | 15:00 G K 프로그램 5 (114min) - 켈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 |
| 19:00 G K E 프로그램 3 (85min) - 갠지스 강의 여인 | | | | |

| 14 | 15 | 16 | 17 | 18 |
|---|---|---|---|---|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 프로그램 6 (97min) | 프로그램 2 (52min) | 프로그램 4 (120min) | 프로그램 3 (85min) | 프로그램 8 (71min) |
| - 형제 칼 | - 차학경 | - 인디아 송 | - 갠지스 강의 여인 | - 안내 없는 여행 |
| 18:30  | | | 19:00   | |
| 프로그램 5 (114min) | | | 프로그램 7 (87min) | |
| - 캘커타 사막의 | | | - 약속의 땅 | |
|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 | | | | |

Screening Schedule
2022. 10. 28. — 12. 18.

Rating
G General
12 Under 12 not
admitted

Subtitles
K Korean
E English

| WED | THU | FRI | SAT | SUN |
|--------------|-----------|---|---|---|
| <u>10.26</u> | <u>27</u> | <u>28</u> | <u>29</u> | <u>30</u> |
| | | 15:00 G K E Program 1 (22min) - The House is Black | 15:00 12 K Program 4 (120min) - India Song | 15:00 G Program 2 (52min) - Theresa Hak Kyung Cha |

| | | | | |
|---|---|---|--|---|
| <u>11.2</u> | <u>3</u> | <u>4</u> | <u>5</u> | <u>6</u> |
| 15:00 G K E Program 1 (22min) - The House is Black | 15:00 G K E Program 3 (85min) - La Femme du Gange | 15:00 Lecture 1. Ch'oe Yun Journey of Purification: The Fiction and Cinema Writing of Marguerite Duras | 15:00 G Program 2 (52min) - Theresa Hak Kyung Cha 19:00 G K E Program 3 (85min) - La Femme du Gange | 15:00 12 K Program 4 (120min) - India Song |

| | | | | |
|----------|--|---|--|--|
| <u>9</u> | <u>10</u> | <u>11</u> | <u>12</u> | <u>13</u> |
| | 15:00 12 K Program 6 (97min) - Brother Carl | 15:00 G Program 2 (52min) - Theresa Hak Kyung Cha | 15:00 12 K Program 7 (87min) - Promised Lands 19:00 G K E Program 8 (71min) - Unguided Tour | 15:00 G K E Program 1 (22min) - The House is Black Cha |

| | | | | |
|---|---|--|---|--|
| <u>16</u> | <u>17</u> | <u>18</u> | <u>19</u> | <u>20</u> |
| 15:00 G Program 2 (52min) - Theresa Hak Kyung Cha | 15:00 G K E Program 3 (85min) - La Femme du Gange | 15:00 Lecture 2. Kim Hyeonjoo Theresa Hak Kyung Cha's Art of Boundaries | 15:00 12 K Program 4 (120min) - India Song | 15:00 12 K Program 6 (97min) - Brother Carl |

| WED | THU | FRI | SAT | SUN |
|--|--|-----------|--|--|
| <u>11.23</u> | <u>24</u> | <u>25</u> | <u>26</u> | <u>27</u> |
| 15:00 12 K Program 7 (87min) - Promised Lands | 15:00 G K E Program 8 (71min) - Unguided Tour | | 15:00 G K E Program 1 (22min) - The House is Black 18:30 G K Program 5 (114min) - Son nom de Venise dans Calcutta désert | 15:00 G K E Screening+Talk - Theresa Hak Kyung Cha Project (24min) |

| | | | | |
|---|---|---|--|--|
| <u>30</u> | <u>12.1</u> | <u>2</u> | <u>3</u> | <u>4</u> |
| 15:00 12 K Program 4 (120min) - India Song | 15:00 G K Program 5 (114min) - Son nom de Venise dans Calcutta désert | 15:00 G K E Program 1 (22min) - The House is Black Lecture 3. Koo Gi Yeon Iranian Society and Women: Since Forough Farrokhzad and Her Legacy | 15:00 G K E Program 8 (71min) - Unguided Tour 19:00 12 K Program 6 (97min) - Brother Carl | 15:00 12 K Program 7 (87min) - Promised Lands |

| | | | | |
|---|--|--|---|---|
| <u>7</u> | <u>8</u> | <u>9</u> | <u>10</u> | <u>11</u> |
| 15:00 G K E Program 8 (71min) - Unguided Tour 19:00 G K E Program 3 (85min) - La Femme du Gange | 15:00 12 K Program 7 (87min) - Promised Lands | 15:00 12 K Program 6 (97min) - Brother Carl | 15:00 Reading. Duras/Godard Dialogues | 15:00 G K Program 5 (114min) - Son nom de Venise dans Calcutta désert |

| | | | | |
|---|---|---|---|--|
| <u>14</u> | <u>15</u> | <u>16</u> | <u>17</u> | <u>18</u> |
| 15:00 12 K Program 6 (97min) - Brother Carl 18:30 G K Program 5 (114min) - Son nom de Venise dans Calcutta désert | 15:00 G Program 2 (52min) - Theresa Hak Kyung Cha | 15:00 12 K Program 4 (120min) - India Song | 15:00 G K E Program 3 (85min) - La Femme du Gange 19:00 12 K Program 7 (87min) - Promised Lands | 15:00 G K E Program 8 (71min) - Unguided Tour |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2003)에서 “문학, 그것도 세계 문학에 다가간다는 것은 국가적 허영심, 속물근성, 강제적인 편협성, 어리석은 교육, 불완전한 운명, 불운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문학은 광활한 현실로, 즉 자유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라고 비유했다. 문학처럼 영화 역시 우리가 속한 시공간을 넘어선 다른 현실과 공간으로 시야를 확장해 주는 매체다.

포르투 파로흐자드, 차학경, 마르그리트 뒤라스, 수전 손택은 20세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시와 소설, 에세이 등의 출판물을 발표한 ‘글을 쓰는’ 이들이었다. 시작한 경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카메라를 들고 이미지와 사운드가 결합된 영상으로 독특하고 실험적인 형식의 작품을 발표했다. MMCA필름앤비디오의 2022년 하반기 프로그램인 《영화로, 영화를 쓰다》는 영상을 또 다른 언어로 사용한 4명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낯선 형식의 영화를 소개한다.

포르투 파로흐자드는 이란 여성의 억압적인 삶과 해방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로 잘 알려진 이란의 시인이자 영화감독이다. 그녀의 시는 이란 여성의 삶을 주제로 미술/영화를 제작하는 쉬린 네샤트의 사진 연작 및 전시 명에 사용되는 등 후대의 예술가 및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시인으로 활동하던 중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한센병 환자들의 병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검은 집〉(1962)을 남겼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신체가 괴사된 환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 이어 수업을 듣고, 기도하는 일상의 풍경이 이어진다. 우리 역시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격리와 차별을 일시적으로 경험한 바 있듯이, 회복도 치유도 없는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어져갔는지를 파로흐자드는 관찰자로서 기록한다. 이 작품은 이란 내에서는 발표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1963년 독일 오버하우젠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관객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지만, 담담하고 정직한 시선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파로흐자드의

태도는 일상적 단어로 이루어진 그녀의 시 쓰기와 이어진다.

차학경은 미술과 비디오 아트, 아티스트 북 사이를 오가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을 발표했다. 1982년 일찍 세상을 떠난 차학경의 영화는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등 서로 다른 언어와 스틸 이미지/무빙 이미지를 교차하는 실험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영상 작품 〈입에서 입으로〉(1975), 〈치환〉(1976) 등에서 차학경은 언어와 의미, 발화된 말과 발화되지 못한 말의 관계를 다루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속에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들여다보고 반영했던 차학경의 작품은 문학이나 미술, 영화의 고전적인 문법을 파괴한다. 그 결과 작가 사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학과 미술 영역 모두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수진, 미영 등이 차학경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와 영상작품을 제작했으며, 문학에서도 낭독회와 관련 학술 논문 등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장-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 〈연인〉(1992)의 원작자로 잘 알려졌지만, 자신의 소설에서 출발한 〈겐지스 강의 여인〉(1974), 〈인디아 송〉(1975), 〈캘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1976)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의 대화와 내레이션이 계속되며, 등장인물 없이 카메라가 건축물의 내외부를 탐험하기도 한다. 수 분간 움직임 없는 화면에 목소리만 이어지고, 동일한 사운드 트랙을 서로 다른 두 편의 영상에 적용하기도 한다. 뒤라스의 영화와 소설, 대담과 같은 관련 텍스트들은 상호 작용하며 뒤라스의 세계를 써나간다. 뒤라스의 영상 속에서 이미지와 사운드, 등장인물과 공간, 화면 속 인물과 화면 밖의 인물 간의 팽팽한 긴장이 느껴진다.

『사진에 관하여』(1977)를 비롯한 비평 활동으로 잘 알려진 예술비평가이자 저술가인 수전 손택은 영화라는 매체에 매료되어 직접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했던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스웨덴에서 체류하면서 개인 간의 심리적 긴장 관계를 다룬 〈식인종을 위한 이중주〉(1969), 〈형제 칼〉(1971) 등을 제작했으며, 욕 키푸르 전쟁을

소재로 한 〈약속의 땅〉(1974), 베니스를 찾은 관광객의 심리와 긴장을 담은 〈안내 없는 여행〉(1983) 등을 발표했다. 적극적으로 미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글을 썼던 수전 손택은 영화에서도 자신이 천착한 주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광범위한 관심사를 종합무진 횡단했던 손택의 행보처럼, 영화의 주제 역시 개인이 처한 심리적 위기와 관계의 파국에서부터 미국의 위선과 반유대주의 같은 정치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글쓰기를 통해, 또 영화를 통해서 익숙한 사고와 문법을 의도적으로 깨고 적극적으로 위반하고자 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포함한 인간의 취약함, 즉 나약하고 무력한 맨얼굴을 대면하게 된다.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폭발하는 인물을 지켜보는 관찰 행위의 공모자가 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문드러진 몸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이 지어보인 웃음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공간, 언어, 사회, 관계 속을 따라가다 보면 좀더 확장된 생각과 감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Introduction

In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2003), Susan Sontag writes, “To have access to literature, world literature, was to escape the prison of national vanity, of philistinism, of compulsory provincialism, of inane schooling, of imperfect destinies and bad luck. Literature was the passport to enter a larger life; that is, the zone of freedom.” Much like literature, cinema is a medium that broadens our view into different realities and spaces that transcend the ones we belong to.

Forough Farrokhzad, Theresa Hak Kyung Cha, Marguerite Duras, and Sontag all used different languages in different regions during the 20th century, yet each was a writer who published work including poetry, fiction, and essays. Though they each began through slightly different pathways, they all used their camera to create unique and experimental film work blending image with sound. *FILM_Text and Image*, an MMCA Film & Video program for the second half of 2022, presents unfamiliar forms of cinema created by four artists who used the moving image as a different kind of language.

Forough Farrokhzad was an Iranian poet and film director renowned for poems that expressed the repressive lives of Iranian women and captured messages of liberation. Her verse would be a source of inspiration to many later artists and younger generations, featuring in exhibition titles and photography series by visual artist Shirin Neshat, who creates art and film focusing on Iranian women's lives. Farrokhzad first took part in filmmaking alongside a film producer while she was working as a poet. She went on to make *The House Is Black* (1962), a documentary on a hospital where Hansen's disease patients have been isolated from their society. The first scene of the documentary shows the patients' necrotic flesh, before continuing to show scenes from their day-to-day life as they attend classes and pray. Just as the COVID-19 pandemic has faced us with a temporary experience of contagious disease and the resulting social isolation and discrimination, Farrokhzad turns her observer's eye to the question of how people go about living their lives with a disease for which there is no recovery

or cure. While the documentary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Iran when it was first released, it won the top prize in the documentary category of the 1963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berhausen in Germany. Farrokhzad avoids an aggressive approach of criticizing societal contradictions or exhorting viewers to take action—but her attitude of capturing her subjects with a calm and honest gaze shares parallels with her poetry, which uses everyday language.

Theresa Hak Kyung Cha presented a unique form of work that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the fine arts, video art, and the artist's book medium. Cha, who died at a young age in 1982, created films that employ experimental techniques, alternating among different languages—including Korean, English, and French—and between still and moving images. In short films such as *Mouth to Mouth* (1975) and *Permutations* (1976), sh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meaning, and between spoken and unspoken words. Cha explored and reflected her own identity as a woman of a different race living in a society that spoke a different language from her mother tongue, and the results dismantle the classical grammars of literature, art, and cinema. This is the reason that her work remains a focus of research in both literature and art studies even today, 40 years after her death. Sujin Lee, Mi Young, and others have made Cha the topic of their research projects and video work, and she remains the subject of readings and academic papers in the field of literature.

Marguerite Duras is renowned for her fiction and other literary work, including the source novel for Jean-Jacques Annaud's film *L'Amant* (1992), but she was also a filmmaker who directed work based on her own stories, including *La Femme du Gange* (1974), *India Song* (1975), and *Son nom de Venise dans Calcutta désert* (1976). Her films include continued dialogue and narration by characters who do not appear on screen, as well as scenes where the camera explores the interiors and exteriors of buildings with no characters present. Voices continue over images that remain still for minutes at a time; the same soundtrack

is applied to two different sets of moving images. Duras's fiction, film, and books about film interact with each other as they give shape to the artist's world. In her films, the viewer senses the high tension between image and sound, characters and space, and figures within and outside the frame.

An art critic and writer renowned for *On Photography* (1977) and other works of criticism, Susan Sontag was also entranced by the cinematic medium and directed several of her own films. While living in Sweden, she directed *Duet for Cannibals* (1969) and *Brother Carl* (1971), which focus on psychological tensions among individuals. She also made *Promised Lands* (1974) about the Yom Kippur War and *Unguided Tour* (1983) about the feelings and tensions of tourists visiting Venice. Known for writing actively about th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of American society, Sontag adopted a similarly tenacious approach in exploring the themes of her films. Just as Sontag's career spanned a vast range of interests, her films explore a diverse range of themes, from personal psychological crises and the collapse of relationships to political topics related to US hypocrisy and anti-Semitism.

All four of these artists used their writing and film to deliberately disrupt and actively violate familiar concepts and grammars. Through their work, we confront human frailty—the weakness and helplessness of human beings, including ourselves. We become complicit with an observer who watches as a man erupts with emotions of frustration; we see the smile of someone forced to live in a decaying body, isolated from society, and ask ourselves what expression we should adopt in response. By following different spaces, languages, societies, and relationships, we can move forward toward a broader scope of ideas and feelings.

Forough Farrokhzad

Theresa Hak Kyung 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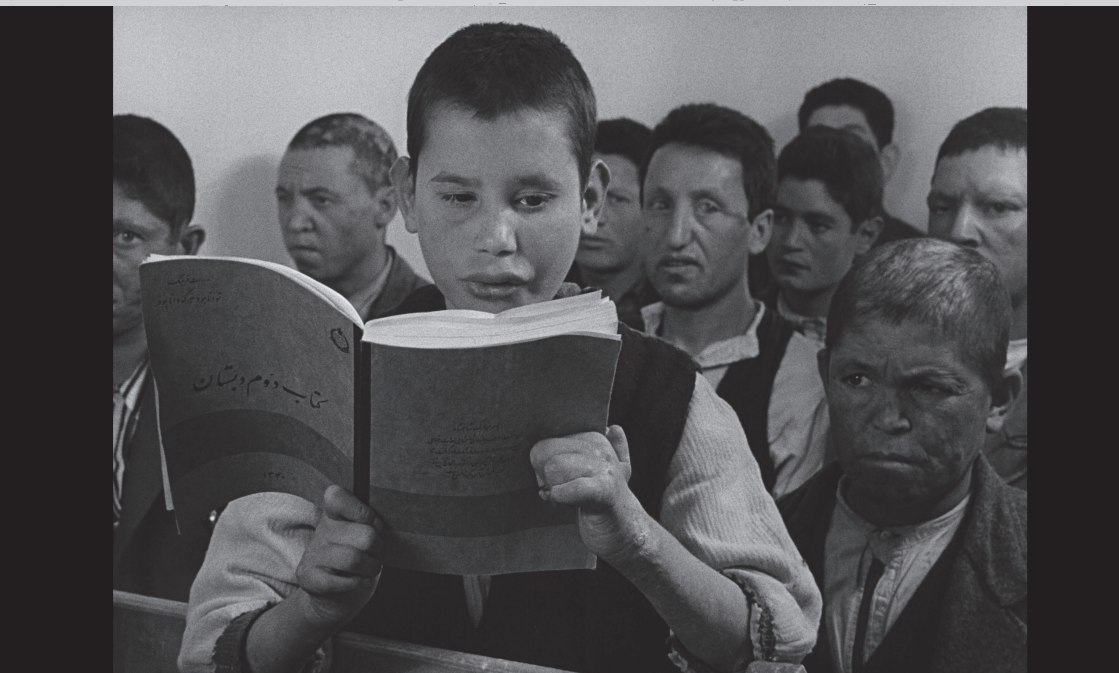
Marguerite Duras

Susan Sontag

포루그 파로흐자드

Forough Farrokhzad

(1934~1967)



검은 집

이란 | 1962 | 22분 | DCP | 흑백 | 사운드

The House is Black

Iran | 1962 | 22min | DCP | B&W | Sound

포루그 파로흐자드는 이란 뉴웨이브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 현대 시인이자 영화감독이다. 여성의 욕망과 자아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과 동시에 보수적인 이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의 사회적 파장은 이혼으로 이어졌고, 이후 작가는 독립된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의 이란 사회와 여성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는 내용이 담긴 『벽』(1956), 『저항』(1958), 『또 다른 탄생』(1964) 등과 같은 시집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란 사회의 모진 비판과 협박으로 인해 정신쇠약에 시달려야 했으며, 결국 유럽으로 떠나게 된다. 그곳에서 영화를 접하게 된 파로흐자드는 1962년 <검은 집>을 발표한다. 영화는 이란 북부에서 있었던 한센병 환자의 집단 감금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그들의 일상 속 풍경을 보여주며 폐쇄적인 이란 사회의 억압과 부당함, 인권탄압, 종교 이데올로기의 거짓 등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특유의 리듬감 있는 편집으로 독자적인 '비주얼 포엠'을 창작했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작가가 남긴 유일한 영화임에도 훗날 이란의 수많은 영화감독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파로흐자드는 영화 촬영 이후 호세인 만수리라는 소년을 섬에서 데려와 입양했는데, 이는 “윤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적 발전을 시도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그의 신념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았던 젊은 작가는 1967년 32세가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Forough Farrokhzad was a modern poet and film director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Iranian New Wave. Making her debut with poetry that unflinchingly revealed a woman's desires and sense of self, she sent shock waves through conservative Iranian society. Those social repercussions led to her divorce, and she began publishing collections of poetry that expressed an independent woman's resistance against Iran's male-centered society and oppression against females, including *The Wall* (1956), *Rebellion* (1958), and *Another Birth* (1964). The harsh criticism and threats that she faced in Iranian society led her to suffer an emotional breakdown, and she finally left for Europe. While there, she encountered the cinematic medium and filmed a 1962 documentary titled *The House Is Black*. Focusing on the mass confinement of Hansen's disease patients on an island in northern Iran, it shows images from their daily lives, metaphorically capturing aspects of Iran's insular society: its repression, injustice, human rights suppressions, and the falsehood of its religious ideology. Farrokhzad was also praised for having created a unique "visual poem" with her distinctively rhythmic editing; despite being the only film that she made before her death, it had an enormous impact on many Iranian filmmakers in the years to come. After filming the documentary, Farrokhzad adopted a boy named Hossein Mansouri and brought him home from the island. This seemed to represent her own way of practicing her conviction that intellectuals "are people who endeavor toward spiritual development to achieve improvements in moral issues." Farrokhzad had much more to share with the world, but she tragically died in a 1967 traffic accident at the young age of 32.

차학경

Theresa Hak Kyung Cha

(1951 ~ 1982)



Courtesy Electronic Arts Internix (EAI), New York.

치환

미국 | 1976 | 11분 40초 | 흑백 | 무성

Permutations

USA | 1976 | 11min 40sec | B&W | Silent

차학경은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작가의 부모는 일본의 식민정치를 피해 만주에 자리잡았다가 해방 전 귀국하여 부산에 정착했다. 이후 한국의 불안한 정세와 군사 독재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196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의 가족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궤적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차학경은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후, 1980년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비디오, 퍼포먼스, 메일 아트, 아티스트 북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넘나들며 디아스포라, 정체성,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아시아인 아메리칸 등에 대한 사유를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으로 풀어냈다. 특히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그에게 언어는 중요한 예술 도구였으며, 1982년에 발표된 아티스트 북 형태의 작품 『딕테』는 이민자로서 느꼈던 이질감,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문화, 어머니와 여성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시적 언어로 담아내면서 차학경의 예술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가는 『딕테』가 출간된 며칠 후, 31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사망한다. 최근 차학경 아카이브는 버클리미술관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에 기증되어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면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휘트니미술관, 스페인 안토니타피에스미술관 등 유수의 기관에서 특별전이 개최되었고, 2022년 초 뉴욕타임스지에서 ‘간과된 인물’ 시리즈에 차학경을 소개하는 등 소수자로서 합당한 조명을 받지 못한 차학경의 예술 세계에 대한 재평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Theresa Hak Kyung Cha was born in Busan in 1951. During Japan's colonial control of Korea, her parents had fled to Manchuria, returning to settle in Busan after the peninsula's liberation. The history of Cha's family shared parallels with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s they once again left in 1961 and moved to the US amid an uncertain political situation and the arrival of a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early 1960s. Cha spent her childhood in Hawaii and San Francisco. In 1980, she relocated to New York and began working as a writer and artist. Exploring a wide range of media including video, performance, mail art, and artist's books, she applied a postmodern perspective to issues related to diasporas, identity, postcolonialism, feminism, and Asian-Americans. A fluent speaker of French, English, and Korean, she saw language as an important artistic tool, and her work *DICTEE* which was published in the form of an artist's book in 1982, uses poetic language to relate the feelings of alienation that she had experienced as an immigrant and to share messages related to Korea's patriarchal culture and the lives of mothers and women. Today, it is seen as providing a comprehensive glimpse of Cha's artistic vision. Only a few days after *DICTEE*'s publication, she tragically died at the young age of 31. Her life and work have become the subject of more active research recently with the donation of the Theresa Hak Kyung Cha archive to the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BAMPFA) which has made this material available to researchers. She has also been the focus of special exhibitions at such eminent art institutions as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in New York and the Fundació Antoni Tàpies in Barcelona. Recently, the New York Times singled Cha out in its "Overlooked No More" series—another effort to draw new attention to an Asian female artist who died without having the opportunity to give her artistic potential its fullest expression, and who as a minority never gained her due recognition during her lifetime.

16 Theresa Hak Kyung Cha 17

비밀스런 유출
미국 | 1974 | 24분 46초 | 흑백 | 사운드

입에서 입으로
미국 | 1975 | 7분 40초 | 흑백 | 사운드

치환
미국 | 1976 | 11분 40초 | 흑백 | 무성

비디오옴
미국 | 1976 | 4분 42초 | 흑백 | 사운드

다시 사라짐
미국 | 1977 | 2분 19sec | 흑백 | 사운드

Secret Spill
USA | 1974 | 24min 46sec | B&W | Sound

Mouth to Mouth
USA | 1975 | 7min 40sec | B&W | Sound

Permutations
USA | 1976 | 11min 40sec | B&W | Silent

Vidéoème
USA | 1976 | 4min 42sec | B&W | Sound

re dis appearing
USA | 1977 | 2min 19sec | B&W | Sound

스크리닝+토크. <차학경 프로젝트>

일시 2022. 11. 27. (일) 15:00
장소 B1, MMCA영상관

차학경 프로젝트

이수진 | 미국, 한국 | 2015 | 23분 58초 | HD | 컬러 | 사운드

『딕테』를 대학원에서 처음 접한 후 오랜 시간 차학경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 연구에는 두 번에 걸친 버클리 미술관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의 차학경 아카이브 방문과 서울, 뉴욕, 버클리에서 진행된 인터뷰가 포함된다. 그 결과물인 <차학경 프로젝트>는 차학경의 예술과 삶을 언어를 통해 살펴보면서 그가 작품 안에서 빈번하게 다루었던 주제인 번역/다중 언어, 시간, 어머니/국가 정체성, 소리(메아리)에 연결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상 안에서 차학경은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들의 기억과 이야기, 목소리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 프로젝트는 한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는 나 자신이 계속해서 흥미를 느껴왔던 주제인 말과 글 사이의 번역과도 이어져 있다. <차학경 프로젝트>는 싱글 채널 영상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작품이면서, 전시형식에서는 나의 개인적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가변적으로 설치된다.

이수진은 텍스트,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주변의 "언어의 공간"을 다룬다. 이 공간은 규정이 어렵고 복잡적이며 제한적인 동시에 포괄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다. 미술과 퍼포먼스 스터디를 공부했고, 밀레이 아트, 블루 마운틴 센터, I-파크, A.I.R. 갤러리, 자라 현대 미술 센터, 아트코뮤날카와 같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며 작업을 해왔다.

Screening+Talk. *Theresa Hak Kyung Cha Project*

Date 2022. 11. 27. (Sun) 15:00
Venue B1, MMCA Film & Video

Theresa Hak Kyung Cha Project

Sujin Lee | USA, South Korea | 2015 | 23min 58sec | HD | Color | Sound

After encountering *DICTEE* in graduate school, I spent a good number of years studying Theresa Hak Kyung Cha's work. I made two research trips to the Theresa Cha Archive at the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BAMPFA) and conducted interviews in Seoul, New York City, and Berkeley. The result is this project titled *Theresa Hak Kyung Cha Project*. It looks into Cha's work and life through language by exploring the themes frequently addressed in her work, such as translation/use of multiple languages, time, mother/national identity, and sound (in echo). Cha is only present in the video through her text and interviewees' reflections, memories, and voices. The project also contemplates how an individual's history can be documented and remembered, which seems to resemble the process of translating spoken words into written texts. While the video is an independent piece on its own, it is accompanied by my personal archive materials when installed for an exhibition.

Sujin Lee is an artist working with language in text, moving images, and performance. In her work, Lee investigates, contemplates, and performs the "language space" around her, which is elusive, complex, limited, expansive, and sometimes contradictory. She studied studio art and performance studies and participated in artist residencies, including the Millay Arts, Blue Mountain Center, I-Park, A.I.R. Gallery, Zarya Center for Contemporary Art, and Artkomunalka.

www.sujinlee.org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Gift of the Theresa Hak Kyung Cha Memorial Foundation.

©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마르그리트 뒤라스

Marguerite Duras

(1914~1996)



인디아 송

프랑스 | 1975 | 120분 | DCP | 컬러 | 사운드

India Song

France | 1975 | 120min | DCP | Color | Sound

마르그리트 뒤라스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마르그리트 도나디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이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으로 이주한 교사 부부 밑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인도차이나에서 보냈다. 인도차이나의 나른한 열대 풍경, 부친의 이른 사망으로 인한 유년 시절의 가난, 식민지의 가난한 백인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대한 기억은 훗날 그의 작품 속 영감의 원천이었다. 인도차이나뿐 아니라 인디아, 베니스, 히로시마 등의 지명이 작품의 배경이나 주인공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미루어보아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이 작품에 깊이 투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아홉 살이 되던 해부터는 프랑스로 돌아와 소르본대학교에서 수학, 법학, 정치학을 공부했다. 한때 좌익운동에 흥미를 느껴 공산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글쓰기에 빠져들었다. 1943년, 뒤라스라는 필명으로 소설 『철면피들』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대표 소설로는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태평양을 막는 제방』(1950), 『부영사』(1966), 『고통』(1985) 등이 있으며, 뒤라스적 사랑과 비극을 그려낸 『여름밤 열 시 반』(1960), 『롤 V. 스타인의 환희』(1964) 등이 있다. 그의 집필 활동은 소설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각본으로도 이어졌는데, 1959년 알랭 레네가 감독한 〈히로시마 내 사랑〉이 대표적이며, 공쿠르상을 수상하기도 한 소설 『연인』(1984)은 1992년 장-자크 아노 감독이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다. 뒤라스는 폴 스방과 공동 연출한 〈라 위지카〉(1987)를 시작으로 〈파괴하라, 그녀는 말한다〉(1969), 〈나탈리 그랑제〉(1972), 〈갠지스 강의 여인〉(1974), 〈인디아 송〉(1975), 〈캘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1976) 등 다수의 영화를 연출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전위적인 소설 작품 군을 일컫는 ‘새로운 소설’이라는 뜻의 ‘누보로망’ 사조의 맥락에서 읽히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는 누보로망으로 읽히기를 부정하며 평생에 걸쳐 인간의 심리를 묘사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깊이 하는 데에 열중했다. 뒤라스는 『연인』의 집필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그의 마지막 연인 안 앙드레아에게 남긴 일기 형식의 에세이를 엮어 『이게 다예요』(1995)를 발표한 이듬해 생을 마감한다.

Marguerite Donnadiou, better known by her pen name Marguerite Duras, was one of France's preeminent novelists and film directors. She spent her childhood in Indochina, having been born to schoolteacher parents who moved to the French colony of Vietnam in search of new opportunities. That experience would later become a source of inspiration for her artistic work: her memories of the languid tropical landscape of Indonesia, the poverty that her family endured in her childhood after her father's death, and the social status that they held as poor white people in the colony. From her use of other locations besides Indochina as backdrops for her work or for the names of her protagonists—including India, Venice, and Hiroshima—we can see how memories of specific places are projected profoundly into her body of work. The year she turned 19, she returned to France, where she studied mathematics, law, and political economy at the Sorbonne. Fascinated by left-wing political activities, she worked as a Communist Party member, but over time her attention came to focus more on writing. Her career as an author began with the 1943 release of her *Les Impudents* under the nom de plume Marguerite Duras. Her best-known novels including the autobiographical *Un barrage contre le Pacifique* (1950), *Le Vice-Consul* (1966), and *La Douleur* (1985), along with *Dix Heures et demie du soir en été* (1960) and *Le Ravissement de Lol V. Stein* (1964), which depict love and tragedy in her own style. Her writing was not limited to novels, as she also wrote film scripts—most notably *Hiroshima, Mon Amour*, which was filmed in 1959 by director Alain Resnais. Her Prix Goncourt-winning novel *L'Amant* (1984) was made into a 1992 film by director Jean-Jacques Annaud. Duras also directed numerous films on her own, starting with *La Musica* (1967), which she co-directed with Paul Seban. Her other films include *Détruire, dit-elle* (1969), *Nathalie Granger* (1972), *La Femme du Gange* (1974), *India Song* (1975), and *Son nom de Venise dans Calcutta désert* (1976). While her work has been read in context of the “Nouveau Roman” movement—a name literally meaning “new novel,” referring to the avant-garde fiction of the time—Duras herself rejected this interpretation. Throughout her life, she focused on deeply exploring her unique approach to representing human psychology. She died a year after publishing *C'est tout* (1995), a collection of journal entries left to her last love Yann Andréa, who had provided devoted support while she was writing *L'Amant*.

갠지스 강의 여인

프랑스 | 1974 | 85분 | DVD | 컬러 | 사운드

인디아 송

프랑스 | 1975 | 120분 | DCP | 컬러 | 사운드

캘커타 사막의 베니스라는 그의 이름

프랑스 | 1976 | 114분 | 35mm | 컬러 | 사운드

La Femme du Gange

France | 1974 | 85min | DVD | Color | Sound

India Song

France | 1975 | 120min | DCP | Color | Sound

Son nom de Venise dans Calcutta désert

France | 1976 | 114min | 35mm | Color | Sound

낭독. 뒤라스와 고다르의 대화

문학과 영화,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를 사유하는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장-뤽 고다르의 『대화』¹⁾ 일부를 낭독하고, 낭독자들과 『대화』의 한국어 번역자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진행 신은실 (영화평론가, 『대화』 번역)
낭독 김은희 (독립큐레이터)
백종관 (영화감독/영상작가)

일시 2022. 12. 10. (토) 15:00
장소 B1, MMCA영상관

Reading. *Duras/Godard Dialogues*

This event features a reading from the *Dialogues*²⁾ between Marguerite Duras and Jean-Luc Godard, in which they consider the relationships between literature and cinema and between language and image. The readers and translator will also be sharing a discussion.

Moderator
Shin Eun-shil (film critic, translator of *Duras/Godard Dialogues*)

Reading
Kim Eunhee (independent curator)
Paik Jongkwan (filmmaker/visual artist)

Date 2022. 12. 10. (Sat) 15:00
Venue B1, MMCA Film & Video

1) 마르그리트 뒤라스/장-뤽 고다르, 신은실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2

2) Marguerite Duras/Jean-Luc Godard, Post-Édition, 2014

수전 손택

Susan Sontag

(1933~2004)



형제 칼

스웨덴 | 1971 | 98분 | DCP | 흑백 | 사운드

Brother Carl

Sweden | 1971 | 98min | DCP | B&W | Sound

Susan

수전 손택은 에세이, 예술 평론, 희곡, 소설의 저자이자 연극연출가, 영화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미국의 대표적인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15살에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학교에 입학한 후 1년 뒤 시카고대학교로 옮겨 문학, 역사, 철학을 전공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로 옮겨 1954년에 영문학과 1955년에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대학교, 소르본대학교 등에서도 수학했으며, 1959년부터는 뉴욕시립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등에서 철학을 강의했다. 이른 나이부터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손택은 베트남전쟁 반대, 80년대 구축된 한국 문인들의 석방 요구, 『악마의 시』를 쓴 소설가 살만 루시디의 사형판결 반대, 이라크전쟁 반대 등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는 행동에 거침이 없었다. 1963년 첫 소설 『은인』을 출간한 후, 『캠프』에 대한 단상(1964), 『해석에 반대한다』(1966)를 발표하며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외에도 『사진에 관하여』(1977), 『은유로서의 질병』(1978), 『타인의 고통』(2003) 등과 같은 에세이가 있다. 그에게 문학은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함과 불온한 것들에서 벗어나 수 있는 해방의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 비로써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는 고백에서 글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손택은 문학뿐 아니라 영화와 연극 연출을 통해서도 사회운동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장편영화로는 <형제 칼>(1971), 이스라엘 전쟁 당시 제작된 <약속된 땅>(1974), <안내 없는 여행>(1983)이 있으며, 1993년 보스니아 내전으로 포위된 사라예보에서 사뮈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출하기도 했다. 손택은 말년에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죽기 직전까지 새로 집필할 글을 구상했을 정도로 삶과 예술에 대한 의지가 강렬했던 작가다.

Susan Sontag is considered one of the leading examples of an activist intellectual—someone who spoke out through her various activities as a writer of essays, film criticism, plays, and fiction as well as a theatrical and film director. After being admitted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t the age of 15, she transferred a year later to the University of Chicago, where she studied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She went on to attend Harvard University, where she studied English in 1954 before earning a master's degree in philosophy in 1955. She also studied at Oxford and the Sorbonne. In 1959, she began lecturing in philosophy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and Columbia University. Profoundly interested in social movements from a young age, Sontag continued practicing her convictions throughout her life with her opposition to the Vietnam War, her calls for the release of imprisoned Korean writers in the 1980s, and her opposition to the death sentence against *The Satanic Verses* author Salman Rushdie and the Iraq War.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her debut novel *The Benefactor* in 1963, she gained notice among intellectuals with the release of “Notes on ‘Camp’” (1964) and *Against Interpretation* (1966). She also published monographs and essay collections including *On Photography* (1977), *Illness as Metaphor* (1978), and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2003). To her, literature was a space of liberation where one could escape the widespread irrational and unwholesome aspects of society, and her profound love for literature can be seen in her admission that it was only in this space that she could feel fully free. In addition to her literary work, Sontag was also a film and theater director who combined her passion for art with a dedication to social movements. Her feature-length films include *Brother Carl* (1971), *Promised Lands* (1974, filmed during a war in Israel), and *Unguided Tour* (1983). In 1993, she directed a production of Samuel Beckett's *Waiting for Godot* in Sarajevo, which was then under siege amid the Bosnian civil war. Sontag passed away from acute myelogenous leukemia in 2004. Her commitment to life and art remained firm to the end, as she continued developing ideas for future writing work until just before her death.

Sontag

형제 칼

스웨덴 | 1971 | 98분 | DCP | 흑백 | 사운드

약속의 땅

프랑스, 폴란드 | 1974 | 87분 | DVD | 컬러 | 사운드

안내 없는 여행

이탈리아 | 1983 | 71분 | DCP | 컬러 | 사운드

Brother Carl

Sweden | 1971 | 98min | DCP | B&W | Sound

Promised Lands

France, Poland | 1974 | 87min | DVD | Color | Sound

Unguided Tour (Letter from Venice)

Italy | 1983 | 71min | DCP | Color | Sound

| | |
|---------|--------------|
| 총괄 | 류지연, 박수진 |
| 기획 | 김은주, 이수정 |
| 진행 | 전하영 |
| 기술총괄 | 류원규 |
| 번역 | 콜린 모엣 |
| 그래픽 디자인 | 김은지 (개미그래픽스) |

| | |
|-------------------|--------------------------|
| Supervisor | Liu Jienne, Park Soojin |
| Curator | Kim Eunju, Yi Soojung |
| Coordinator | Jeon Hayoung |
| Technical Manager | Ryu Wonkyu |
| Translation | Colin Mouat |
| Graphic Design | Kim Eunji (ant graphics) |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 토: 오전 10시-오후 9시

입장료

서울관 통합 관람권 4,000원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오후 6시-9시)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
시간당 3,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무염소 표백 펄프법 ECF(Elementary Chlorine Free)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뉴 백상지)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브로슈어 폐기시 2개의 철심을 제거하고 분리수거 하시기 바랍니다.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00-18:00
Wed, Sat: 10:00-21:00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won
Every Wed, Sat 18:00-21:00: Free
Under 24 or over 65: Free

Parking

Daily Hours: 08:00-23:00
3,000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165, Sogyeo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